

미국 국방부의 ‘동해’에 대한 ‘일본해’ 표기 행위 규탄
결의안
(최세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23-100
----------	----------

발의연월일 : 2023. 9. 6.

발 의 자 : 최세진, 박주선, 강선영,
홍재희, 전철규, 박성호,
고찬양, 정정희, 김희동,
정재봉, 최동철, 한상욱,
신찬호

1. 의결주문

- 「미국 국방부의 ‘동해’에 대한 ‘일본해’ 표기 행위 규탄 결의안」
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 미국 국방부가 공식적으로 ‘동해’에 대한 표기를 ‘일본해’로 통일
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한바, 이러한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동해’의
‘일본해’ 표기 결정은 성급하고 잘못된 행위임.
- 미국 국방부의 공식 입장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국제사회에서
‘동해’ 표기의 정당한 위상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동해’
표기가 국제적 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모든 외교적
조치를 강구할 것을 촉구함.

3. 결의안: 붙임

미국 국방부의 ‘동해’에 대한 ‘일본해’ 표기 행위

규탄 결의안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는 미국 국방부의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겠다는 공식 입장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함께 즉각적인 수정을 촉구하는 바이다.

지난 2월 미국 국방부는 동해상에서 한미일 훈련을 실시했을 당시 훈련 해역을 ‘동해’가 아닌 ‘일본해’로 표기하였다. 이와 더불어 앞으로도 ‘동해’를 ‘일본해’로 공식 표기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해역의 명칭은 한 국가의 명칭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지리적 위치나 특징을 반영하는 것이 원칙이다. 전 세계 해역 명칭의 표준을 결정하는 국제기구인 국제수로기구(IHO) 및 유엔지명표준화회의(UNCSGN)에서는 2개국 이상이 공유하는 지형물에 대해서 단일 명칭으로 합의가 어려운 경우 각국이 사용하는 명칭을 병기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제까지 한국과 일본 사이의 해역을 ‘동해’ 및 ‘일본해’로 병기하고 있었던 상황 속에서 미국 국방부의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동해’의 ‘일본해’ 표기 결정은 성급하고 잘못된 행위이다.

특히 고유 명칭이 지니고 있는 함축성과 의미를 고려할 때 ‘동해’의 ‘일본해’

표기는 단순한 명칭 표기의 문제를 넘어 동해 해역 내 독도 영유권 분쟁의 여지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는 미국 국방부의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겠다는 공식 입장에 대해 다시 한 번 엄중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는 미국 국방부가 한미일 훈련 해역을 ‘일본해’로 표기한 것을 즉각 수정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는 미국 국방부가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겠다는 공식 입장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동해’ 표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사국 간의 대화를 재개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사회에 ‘동해’ 표기의 역사적 당위성을 알려 미국 국방부의 잘못된 ‘동해’ 표기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모든 외교적 능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2023. 9. 13.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일동